

제 5 강 : 동역하는 지도자

-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이 지닌 리더십의 탁월성은 동역자들과의 팀웍에 있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지만 동시에 사람들과도 함께 일했습니다. 주변에는 항상 그를 따르고 돕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 중심의 사역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게 된 것입니다.

리더십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 일을 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과 동역하기 보다는 하수인으로 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 때 주변에 사람이 없고 항상 외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후계자도 없고 따르는 자도 없습니다.

1. 동역에 실패한 바울

1. 바울은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요한이라는 마가가 도중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2. 바울은 일이 잘못되면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5:39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의견차이가 생겼을 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과격한 성격을 단면적으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베드로와도 의견차이를 심하게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11에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면책하였노라”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바울은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미지의 지역으로 떠나야 했을 때 누군가 돕는 사람이 필요했으며 함께 일할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 바울과 동역자들

1.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아나니아,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루디아, 바울과 아굴라와 부리스길라,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2. 바울과 동역자들과의 관계는 생명을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로마서 16장 1-27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이들과의 긴밀한 동역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3.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십시오.
1) 로마서 2) 고린도 전후서 3) 갈라디아서 4) 에베소서 5) 빌립보서 6) 골로새서 6) 데살로니가 전후서 7) 디모데 전후서 8) 디도서 9) 빌레몬서 등입니다.
이러한 모든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3. 두세 사람과 열두 사람

1) 예수님은 평소에 두세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마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를 선호하고 다수가 곧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교회의 원형은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 양육하셨던 최대 수는 열두 명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열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을 특별히 자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 자신이 이루어 놓은 구속사업을 열두 제자를 통하여 일 하였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4. 예수님의 열두 제자

1.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훈련되고 변화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사역에는 동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훈련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 시키셨고 그 교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의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투명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3.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상에 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력

1.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서로 동역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서 하지 못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지만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서로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동역하는 리더십이 하늘나라의 리더십입니다.

2.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서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보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명령하고 지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는 구조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서로가 하나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지체는 서로 다르나 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